

# 동일신보

무소속대변자

제26호 [루계 제2125호]

주제 100  
(2011). 6

25  
토요일

음력 5. 24

6. 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 김정일령도자를 중심으로 한 조선의 일심단결

국제 사회계는 조선혁명의 뿐만 아니라 세계의 혁명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을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백승의 혁사를 창조해온 전통을 이어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을 강성국가를 건설해나가는 우리 인민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로씨아 김정일동지로작연 구보급축전협회 위원장은 한 명의 동지를 얻기 위하여 수천리길을 걸으시고 언제나 동지들과 고락을 같이 하신 김정일동지를 조선의 혁명가들은 단결의 중심으로 받아들였으며 그이를 위해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었다.

오늘 조선인민은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강성대국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파키스탄신문 『발루치스탄 리포트』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조선은 크지 않은 나라지만 세계 『유일초대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조선의 군력도 대단하지만 이 나라에는 그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

조선사회는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운명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인터내셔널홈페이지는 김정일동지는 조선의 당, 군대, 인민을 승리에 이끄시여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령도자, 타월한 군사전략가이시라고 칭송하였다.

홈페이지는 조선은 군력이 약

### 국제 사회계가 격찬

령도자께 자기들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에서 이룩되는 모든 성과들은 김정일령도자의 두리에 일심 단결 하여 수호할수 있다는 것을 전세계에 표시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메히꼬신문 『우리니다나 씨오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가 나아갈 길을 활히 밝혀주시고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통일을 위해 불문불휴의 로고를 바쳐가고 계신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정일각하를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 있다.

지난 세기말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었지만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은 그때도 하지 않았다.

조선인민은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핵합세력과 맞서 사회주의를 수호하였을뿐아니라 강성대국건설의 새시대까지 열어놓았다.

민주공고사회주의인민련합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가 나아갈 길을 활히 밝혀주시고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통일을 위해 불문불휴의 로고를 바쳐가고 계신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정일각하를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 있다.

본사기자

## 조중친선의 영원불멸성을 과시한 일대사변

국제 사회계는 1만 5,000여 명의 대장정으로 전통적인 조종친선의 강화발전과 동북아시아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정, 인류자주위업의 승리적 전진에 커다란 기여를 하신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혁사적인 중국방문성과를 높이 찬양하고 있다.

노웨이공산당 외스트풀드주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열마전에 또다시 김정일주석의 고귀한 발자취가 어려있는 중국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고

주석의 혁명력사에 대해 회고하신 것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주석에 대한 그이의 끝없는 흡모심의 표시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방문을 통하여 두 나라로 세대령도자들께서 마련해주시고 혁사의 풍파속에서도 변함없이 강화발전되어온 조종친선관계를 과시하였다.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은 김정일각하께서 또

다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

방문하신 것은 그이께서 조종친

선을 얼마나 중시하고 계시는

가를 보여주는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

그이의 중국방문은 조종친

선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

며 조선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번영을 이

록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중대사변이다.

영국공산당 (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특별전원위원회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중국을 방문하신 것은 그이께서 조종친선을 얼마나 중시하고 계시는

가를 보여주는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

그이의 중국방문은 조종친

선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

며 조선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번영을 이

이 평가하였다.

로드미니아근로자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의 중국방문은 조종친선에 대를 이어 영원하다는 것을 다시금 은혜상에 표시한 혁사적사변이다.

적대세력들은 사회주의조선을 압살하기 위하여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있지만

실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김정일각하께서 혁사적인 중국방문은 성과적으로 진행하는데 대하여 열렬히 축하하면서 그이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축원한다.

본사기자

## 조국소식

### 수안청년2호발전소 완공, 준공식 진행

수안청년발전소가 완공되어 조업하였다.

19일 현지에서 진행된 준공식에는 황해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리원일, 관계부문 일군들, 군내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이 참가하였다.

준공식에서는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장군께서 수안청년1호, 2호발전소를 훌륭히 건설자들과 일군들, 지원자들에게 보내신 감사가 참가자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장군님의 숭고한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장군께서 발전소 건설을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었으며 완공되였을 때는 감사까지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발전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설비운영을

표준조작법과 기술구정의 요구대로 하여 전력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군의 경제발전과 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준공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발전소를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기지까지 번듯하게 건설하였으며 수십만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어 이 일대의 풍치를 아름답게 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발전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설비운영을 표준조작법과 기술구정의 요구대로 하여 전력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군의 경제발전과 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준공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발전소를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장군께서는 그이께서 조종친선을 위한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은 방대한량의 굴착작업과 콘크리트치기, 발전기설공사와 발전기설치 등을 립체전으로 벌리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 지원자들이 발전소주변에 수십동의 문화주택과 휴양소, 야외체육훈련

장과 함께 군내 청년들이 수십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여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은 말은 작업과

건설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

고 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였다.

건설자들은 말은 작업과

## 불멸의 조선통일강령 - 6. 15 북남공동선언

력사적인 6. 15 북남공동선언은 오늘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실현의 근본원칙과 실천방법을 명시한 북남관계발전의 초석으로, 조선통일의 대강으로 국제사회계의 열렬한 지지와 찬가를 받고 있다.

그들은 발전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설비운영을 표준조작법과 기술구정의 요구대로 하여 전력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군의 경제발전과 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준공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발전소를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기지까지 번듯하게 건설하였으며 수십만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어 이 일대의 풍치를 아름답게 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발전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설비운영을 표준조작법과 기술구정의 요구대로 하여 전력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군의 경제발전과 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준공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발전소를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기지까지 번듯하게 건설하였으며 수십만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어 이 일대의 풍치를 아름답게 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발전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설비운영을 표준조작법과 기술구정의 요구대로 하여 전력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군의 경제발전과 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준공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발전소를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기지까지 번듯하게 건설하였으며 수십만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어 이 일대의 풍치를 아름답게 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발전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설비운영을 표준조작법과 기술구정의 요구대로 하여 전력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군의 경제발전과 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준공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발전소를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기지까지 번듯하게 건설하였으며 수십만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어 이 일대의 풍치를 아름답게 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발전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설비운영을 표준조작법과 기술구정의 요구대로 하여 전력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군의 경제발전과 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준공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발전소를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기지까지 번듯하게 건설하였으며 수십만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어 이 일대의 풍치를 아름답게 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발전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설비운영을 표준조작법과 기술구정의 요구대로 하여 전력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군의 경제발전과 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준공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발전소를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기지까지 번듯하게 건설하였으며 수십만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어 이 일대의 풍치를 아름답게 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발전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설비운영을 표준조작법과 기술구정의 요구대로 하여 전력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군의 경제발전과 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준공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발전소를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기지까지 번듯하게 건설하였으며 수십만그

내 나라의 푸른 하늘 아래 세계를 놀래우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나고 인민의 세기적인 리사이 험실로 펼쳐지며 강성대국의 찬란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

얼마 전 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통전파수농장과 고산파수농장의 사과꽃향기에서 그것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느끼며 희한하게 일떠선 파수원의 전경에서 변명하는 내 조국의 새 모습을 보았다.

나는 머지않아 삼천리에 펼쳐질 무릉도원의 화회로운 모습을 그려보면서 이 글을 쓴다.

\* \* \*

인류가 사파를 심고 가꾸어온지도 어언 4천여년이나 된다.

옛 기록에 『사파가 익는 계절이면 사람이 건강해진다』, 『하루에 사파 한알씩만 먹으면 의사가 필요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파는 맛과 약효가 뛰어나 일찌기 『파일의 왕』으로 불리웠다고 한다.

우리 민족도 오래전부터 이 땅에서 사파나무를 심고 정성껏 가꾸어왔다.

세상에는 맛좋고 모양고운 과일이 많아도 조선사파처럼 우리 겨레의 사랑을 들풀 받아온 파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파일을 꽂으라면 사파부터 꽂았고 판흔상제 음식상에 사파만은 빼놓지 않고 올려놓았던 우리 겨레가 아닐가 싶다.

이처럼 사파와 우리 겨레는 오래고 깊은 인연을 맺고있지만 그 옛날 백성들이 언제 한번 사파를 마음껏 먹어보았던가. 파일이란 몇몇 독립운동가들이 소유물이었고 사파 한알때문에 『도적』으로 물려 치욕을 새기지 않으면 안되었던 우리 민족이었다.

타향만리 이국에 가서도 조선사파의 특이한 향기에 눈물흘리며 두고온 부모처자를 그리였고 절해고도에 가서도 민족의 얼이 슬퍼인 사파를 두불에 부비며 애국의 마음을 가다듬은 하던 우리 겨레였다.

아버지이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 일본군경들에게서 빼앗아 유격근거지의 아동단원들에게 안겨주신 조선사파는 단순한 파일이 아니라 겨레의 냄새와 나라찾을 애국의 마음을 심어준 민족의 향기였다.

우리 겨레가 한갓 마음속소원으로만 간직해온 그 사파나무들은 나라에 뿌리내리도록 해주시고 꽂펴나는 인민들의 행복의 상징으로 되도록 가꾸어 주신분은

# 사과향기에 실려오는 강성대국의 래일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이 시었다. 내가 남조선에서 살다가 20여년 전 사회주의공화국의 품에 안겨 평양파수농장을 참관했을 때의 일이다. 매번 사파파는 계절이어서 사파 한알을 맛보고 그 맛과 향기가 독특하기에 남조선에서 이를 낸 대구사파보다 더 맛이 좋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자 그곳 농장의 책임일꾼은 공화국에는 이름난 사파들이 많다고 하면서 감동적인 사연들을 이야기해주는 것이었다.

그때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우리 수령님께서 평화시기도 아닌 전쟁의 불길이 온 나라를 휩쓸던 속에서 평양파수농장건설을 발기하고 이끌어오시었다는 사실이었다.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나라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한 군사작전문제들이 분초를 다투며 최고사령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시각에 적기의 폭격에 불타버린 평양시교외의 야산들을 가슴아프게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는 저 야산들에 파일을 건설하자고,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와 인민들에게 선물할 파일을 지금부터 마련하자고 가슴뜨거운 말씀을 하시였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여 전화의 포연속에서 평양파수농장이 생겨나고 어려운 사파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지금도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의 파일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울이신 노고와 현신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

한분의 자금도 귀했던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파일의 새 시대를 펼치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파일농장들에 우량종 파일나무와 영농기자재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시었다고 한다.

그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쟁으로 불타버린 전국의 야산들을 황금산, 파일산으로 전면시킬 것을 구상하시고 곳곳마다에 그 불씨를 지펴주시었으며 50년 전 4월에는 북청에서 혁사적인 회의를 여시여 파일생산을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주시었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아무리 백성을 귀하게 여기고 인덕이 있는 형도자라 한들 나라의 운명이 생사기로 놓여있는 전쟁시기에 인민들에게 안겨줄 한알한알의 사파를 생각하지였다니 그런 전설같은 이야기에서 찾을 수가 있다.

그 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쟁으로 불타버린 전국의 야산들을 황금산, 파일산으로 전면시킬 것을 구상하시고 곳곳마다에 그 불씨를 지펴주시었으며 50년 전 4월에는 북청에서 혁사적인 회의를 여시여 파일생산을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주시었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파업이라고,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염두하였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파일을 대체적으로 늘이는 것은 대규모적인 자연

력사적인 6.15 공동선언 발표 11돐 기념 도서, 사진, 미술품 전시회가 15일 중국 연길시에서 연변문화예술교류협회의 주최로 진행되었다.

전시회장 정면에 모셔진 백두산 3대 장군의 존귀하신 영상사진 앞에는 재중조선인

## 해외동포들의 통일열기를 보여준 뜻깊은 전시회

중국 연길시에서 도서, 사진, 미술품 전시회 진행

총련합회, 연변문화예술교류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에서 보내온 꽃바구니들이



정중히 놓여 있었다. 전시회 개막식에는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 평양출판사 일군들, 연길시에 와있는 우리 나라 무역 일군들, 재중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전시회에서는 축하연 설들이 있었다.

전시회장에는 력사적인 평

양상봉과 새 세기 조국통일리정표인 6.15 공동선언의 책략파정을 보여주는 숭고한 화폭들과 전군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 장군님께서 전통적인 조중친선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 북파남, 해외동포들이 6.15 공동선언 판권을 위한 통일애국운동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을 보여주는 사진들 80여장이 전시되었다.

또한 전시회장에는 지난

기간 평양출판사에서 출판된 한글 3 000부의 도서들과 30여점의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여 깊은 애착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나는 우리 민족의 문화전통을 빛내여 주시는 김정일 장군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중국 도문에서 살고 있는 무역회사 사장 고명희동포는 『장군님께서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하신 소식은 우리 재중동포들에게 얼마나 큰 민족적 자부심을 새겨주었는지 모른다. 중국의 당과 국가간부들이 외교관례를 깨고 장군님을 최대의 국宾으로 극진히 환대하였는데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대통령이나 다른 나라 수반들이 와도 이런 영접행사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조국은 더욱 빛나고 반드시 통일도 이룩할 것이며 강성 국가도 건설될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나는 비록 중국에서 살고 있지만 조국의 부강과 통일을 위해 힘껏 일해야겠다.』라고 말하였다.

중국 연길시에서 진행된 이번 전시회는 참관자들에게 질세의 위인인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흡모심을 간직하고 6.15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해해나가는 걸에 자주통일, 평화번영이 있다는 확신을 안겨준 뜻깊은 계기로 되었다.

최동민

## 6.15 북남공동선언 발표 11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보고회 진행



6.15 공동선언 발표 11돐기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보고회가 14일 중국 심양에서 진행되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인 비록한 총련합회와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대표들, 료녕지구협회 각 지부대표들, 동포들 그리고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가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중국방문으로 조중친선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력사적인 6.15 공동선언발표 11돐을 맞으며 진행된 전시회장을 참관한 것은 해외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조국을 더 잘 알 수 있게 한 훌륭한 기회였다. 나는 연변에서 살고 있는 기업인이자 만족의 문화분야에 대하여

고 6.15 공동선언을 책략발표 하심으로써 민족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 전제제조선인들의 열화 같은 흠토의 한마음으로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6.15 공동선언과 그 실천 강령인 10.4선언발표 이후 통일위업 실현에서 이루어진 모든 성과들은 겨레의 통일운동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료고와 탁월한 정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고 하면서 봄은 비록 이국땅에 있지만 조국의 부강과 통일을 위한 투쟁에 더욱 힘 있게 펼쳐나설 것을 다지였다.

본사기자

## 무자비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지금 남조선에서 역적당이 『북인권법』 조작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20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973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최근 피뢰파역적당이 『북인권법』 조작책동을 강력한 규탄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극우도발적인 『북인권법』이라는 것을 조작해보려고 발악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뢰보수당국과 『한나라당』 패거리들은 편협 당정협의회니 뛰어니 하는 것들을 벌려놓고 『북인권법』의 『국회』 강행 통과를 떠들고 있는가 하면 동족대결의 악질 광신자인 피뢰통일부 장관 현 인력을 앞장에서 『북인권법』 조작을 미친듯이 험담하고 어중이떠중이 인간쓰레기들까지 여론조성 광대극에 끌어내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보도는 『북인권법』이 『인권』의 미명 하에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중상모독하고 우리를 내부로부터 허물어보려는 극히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반통일대결악법이라고 하면서 피뢰파당이 내외의 반대에 부딪쳐 실패한 그 너절한 것을 또다

시 내들고 『국회』 통과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대결왕증이 더욱 무분별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폭로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피뢰파역적당의 『북인권법』 조작책동은 우리 제도, 우리 주권, 우리 존엄에 대한 공식적인 전면부정이며 우리와의 체제대결을 법제화하려고 한 것으로서 상대방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대한 북남합의를 완전히 뒤집어엎고 북남관계를 격폐와 대결의 극단으로 더욱더 몰아가기 위한 반민족적, 반통일적 망동이다.

보도는 피뢰파들의 책동은 대내외정책의 총파산과 반인민적 악정, 북남관계 파국으로 국도의 궁지에 몰리고 심각한 통치위기에 직면한 대체로 모략책동을 정당화하고 법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 험하기 그지없는 『금번사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통일』 망상을 실현해보려고 희책하고 있다.

피뢰파당은 범죄적인 『북인권법』을 통하여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 랍치와 반공화국 심리모략전을 비롯한 대체로 모략책동을 정당화하고 법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 험하기 그지없는 『금번사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통일』 망상을 실현해보려고 희책하고 있다.

보도는 『북인권법』은 그 성격과 목적으로 보면, 내용으로 보나 악명높은 『보안법』보다 더 극악한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인륜적 악법이다.

피뢰파당은 범죄적인 『북인권법』을 통하여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 랍치와 반공화국 심리모략전을 비롯한 대체로 모략책동을 정당화하고 법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 험하기 그지없는 『금번사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통일』 망상을 실현해보려고 희책하고 있다.

보도는 『북인권법』은 그 성격과 목적으로 보면, 내용으로 보나 악명높은 『보안법』보다 더 극악한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인륜적 악법이다.

보도는 『북인권법』은 그 성격과 목적으로 보면, 내용으로 보나 악명높은 『보안법』보다 더 극악한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인륜적 악법이다.

보도는 『북인권법』은 그 성격과 목적으로 보면, 내용으로 보나 악명높은 『보안법』보다 더 극악한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인륜적 악법이다.

보도는 『북인권법』은 그 성격과 목적으로 보면, 내용으로 보나 악명높은 『보안법』보다 더 극악한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인륜적 악법이다.

보도는 『북인권법』은 그 성격과 목적으로 보면, 내용으로 보나 악명높은 『보안법』보다 더 극악한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인륜적 악법이다.

보도는 『북인권법』은 그 성격과 목적으로 보면, 내용으로 보나 악명높은 『보안법』보다 더 극악한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인륜적 악법이다.

## 승리를 투쟁을 이루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말아야 한다

오는 6월 29일은 남조선에서 군사파 쇼독재를 연장해보려던 군부세력들이 남조선인민들의 저항적인 항쟁 앞에 무릎을 꿇고 『직선제개헌』을 기본으로 하는 『6.29 민주화선언』을 발표한 날이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사에 자랑스러운 한페이지를 기록하고 있는 6월인민항쟁은 정의와 사회적 진보를 위해 인민들이 하나로 뭉쳐싸울 때 그 어떤 독재세력도 쳐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물고두고 수치와 엄벌을 안길 것이라는, 우리

의 정의로 불구하고 반공화국 악법조작책동에 계속 매달리는 것으로 하여 초래될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엄중한 후파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피뢰파당자신들이 짓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 《인권》 소동 비난

남조선의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16일 정책회의에서 『북인권법』은 베라살포 단체를 지원하는 『뉴라이트 반북단체 특혜법』이

라고 비난하였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연립본부와 학술본부는 13일에 가진 도록회에서

당국의 『북인권법』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을 다짐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였다.

남조선 민주로동당의 리정희대표도 7일 『국회』에서 『북인권법』처럼 북을 자극하거나 조건을 달아 대화를 거부하는 일을 즉시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본사기자

## 북남공동선언리행과 반역패당 심판투쟁에 떨쳐나설 것을 호소

남조선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가 15일 북남공동선언발표 11돐에 즈음하여 『6.15 공동선언』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성명은 6.15 공동선언과 리정희 대표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국통일의 원칙과 방도를 밝힌 6.15 공동선언의 채택으로 남북관계 발전에서는 놀라운 전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조선반도에 고조되던 평화와 통일의 기운에 리정희 『정부』가

찬물을 끼얹었다고 하면서 국민

을 기만하고 민족을 동진자들을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성명은 6.15 공동선언과 리정희 대표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국통일의 원칙과 방도를 밝힌 6.15 공동선언의 채택으로 남북관계 발전에서는 놀라운 전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조선반도에 고조되던 평화와 통일의 기운에 리정희 『정부』가

찬물을 끼얹었다고 하면서 국민

의 고의적인 도발행위였다. 공화국은 국도에 이른 보수집권세력의 무분별한 대결망동에 대해 수차에 걸쳐 경고하였으며 도발자들이 끝을

내밀지 않을 것을 경고하고 그 본거지를 태운 것이다.

국도의 대결과 전쟁책동이 낳은 비극적 산물이 바로 『천안』 호사건과 연평도사건인데 그 결과로 놓아놓고 두 사건의 해결을 남북공동선언리행과 반역패당심판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자고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 반공화국대결정책을 배격

남조선 『CBS』 방송에 의하면 당일 민주당이 15일 경기도 파주에 텁진각에서 최고위 회의를 가지고 현 당국의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그들은 리정희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전에 실시하였다.

이 완전히 실패하였다.

민족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6월 15일은 남북수뇌분 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리행하겠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그들은 리정희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이 완전히 실패하였다.

민족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6월 15일은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의 인내성 있는 노력에 불질로 대답해나섰으며 결국은 그 대가를 특

누구도 없다.

북과 남이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에서 살고 있는 현실적 조건에서 통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족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리행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여야 한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북남관계가 오늘과 같은 사태에 처하게 된 것은 남조선의 현 보수당국이 『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하지 않은데 있다.

남조선당국은 말도 되지 않는 『시인』이나 『사파』의 오그랑수에 매달리지 말아야 하며 북남공동선언리행의 사부터 똑똑히 밝혀야 한다.

류인명

# 통일은 6.15의 기치아래 소리치며 온다

## 민족의 버림을 받은자의 가소로운 《통일》 타령

리명박의 입에서 또 해피한 《통일》 타령이 울려나왔다.

지난 21일 역도는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이라는 데서 《통일은 도적들이 올것》이라느니, 《한밤중에 올수 있다.》느니, 《항상 준비해야 한다.》느니 하고 잠꼬대 같이 떠들어댔다.

이것은 민족의 버림을 받은 파대 망상증환자의 또 하나의 발작증이다.

거제가 바라는 통일에 대해 《도적》이니, 《한밤중》이니 한짓부터가 민족과 통일에 대한 모독이 악수를 없다.

맡은 그 사람의 대면세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리명박이 《대통령》 빙거지를 쓰고 지금까지 한짓이란 돌아다니며 거짓말만 하고 뒤플방에서 쑥덕공론만 하며 민심과 대세에 역행해온 것뿐이다. 밝은 대낮을 험어하고 어둑검검한데를 찾았더니며 쓸라다

질하는 취처럼 밝은 6.15시대에 도전하여 대결과 전쟁의 어둠만을 물아오기 위해 별의별짓을 다해온 리명박이다.

생긴 그대로 속이 시커멓고 저속하기 이를테 없으니 통일도 아마 그렇게 오는가하고 생각하는 것 같다.

문제는 그가 아직도 그 무슨 《금변사태》, 《흡수통일》의 어리석은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역도가 《도적》이니 온다니 한 통일이 그것을 넘두에 둔것이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저어 그는 《통일이 가까워졌다.》고 입에 해를 살가봐 말을 안 한다.》고 입에 담지 못할 독설까지 내뱉었다.

역도의 이러한 망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도 그는 도이월란드를 행각하면서 《베를린 장벽은 50년 더 갈것이라고 했는데 10개월 후에 무너졌다.》느니, 《통일이 멀지 않았다.》느니 하며 《흡수통일》의 기도를 꼽아놓으니 드러내였다. 이보다 앞서서는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을 거들며 《탄탄한 정권도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느니 하며 시꺼먼 흥심을 드러내보였다.

비약의 폭풍안고 강성국가의 래일을 향하여 노도쳐 달려가는 공화국의 현실에는 눈을 감고 자기 조국과 가족, 친척을 버리고 달아난 너절한 인간총물들의 잡소리에 귀가 향아리만 해서 《흡수통일》의 허황한 개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가련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파멸에 처할 것은 남조선의 보수대결 《정권》이다.

지금 남조선 보수집권 세력은 《대북정책》의 총파산으로 안팎으로 궁지에 몰려있다. 보수당국의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책동, 반인민적 정책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원성과 분노는 하늘에서 땅에 달고있다. 남조선의 보수 《정권》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거제로부

터 이미 배척을 당하였으며 공화국은 리명박역적 폐당파는 더이상 상종하지 않을것임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자기스스로 초래한 최악의 통치 위기로 마지막 막사를 물어쉬고 있는 것 이 현 남조선집권자이다.

리명박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통일은 남이 모르게 《도적》 같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제의 의지와 험한 통일진군에 의하여 온다.

통일은 《한밤중》에 조용히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가 빛나는 6.15시대의 밝은 길에서 소리치며 온다.

민족은 이미 극악한 반통일대결 분자에게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리었다.

북과 남의 온 거제는 민족의 통일지향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남조선의 대결광신자들을 쓸어버리며 자주통일의 새 아침을 투쟁으로 기어이 날아갈 예정이다.

최 광혁

르며 하늘땅 끝까지라도 가려는 천만군민의 불변의 신념과 환희의 발걸음은 지금 천지를 진동하며 선군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열고있다.

필승불패의 선군정치에 기초한 공화국의 군사적 위력, 자위적 억제력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넘보지 못하게 비할바없이 강화되고 있다.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갖춘 공화국의 막강한 군사적 위력에 대해 세계의 언론들도 미국이 이를

북남관계의 파국을 물어온 범죄적 책임에 대한 내외의 거세찬 비난여론에 당황망조한 남조선보수당국이 허둥대며 얼친 소리를 들어놓고 있다.

남조선집권자가 나서서 《일관된 정책》이나 뭐니 하는 맥빠진 소리를 늘어놓던 끝에 불쑥 《통일이 가까워졌다.》는 엉뚱한 말로 사람들을 깜짝 놀래우는가 하면 통일부 장관 혼인력은 《비핵화》나, 《개혁, 개방》이니, 《변화》나 하는 판에 박은 말만을 계속 주어대고 있다.

다 쭈그레진 《대결》나 팔에서 웃바른 소리가 나올수 없을뿐더러 이것은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어쩌다는 격의 언청이 통소 대로 하는 소리이고 계속되는 통족대결 망발이다.

통일은 북남관계의 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리명박 《정권》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 인 《대북정책》으로 말미암아 오늘 북남사 이에는 그 어떠한 대화도 없으며 전쟁위기 만이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그럼에도 남조선보수당국이 아직도 《일관된 정책》이나, 그 무엇이 《가까워졌다

다.》느니, 《비핵화》나, 《개혁, 개방》이니, 《변화》나 하는 것은 내외에서 고조되고 있는 대화분위기를 차단하고 북남관계파란과 《대북정책》실패에 대한 비난여론을 모면하며 반공화국핵소동과 대결책동을 정당화해보려는 단말마따발 악에 지나지 않는다. 또 그것은 있지도 않을 그 누구의 《봉피》를 고대하며 《흡수통일》을 기다리는 극악한 흥심을 또다시 드러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저 하늘의 태양이 떨어지기 바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총체적 국정파란으로 안팎에서 염이어 맞아 터진 리명박이 이제는 머리가 돌다 못해 명과 암도 제대로 구분을 못하는 모양이다.

누구나 자기 령도자를 어버이라 부르며 믿고 따르고 강성국가의 래일을 눈앞에 바라보며 신심과 락관에 넘쳐 전진하는 공화국이다.

리명박은 현실을 바로보아야 한다. 가까워진 것은 《MB정권》의 파멸 뿐이다.

박 영길

## 통일조국에서 살 자격이 없다

지금 우리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중앙위원회의 일꾼들은 비롯하여 온 거제는 얼마 전 리명박역도가 또다시 채 친 망방에 치미는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

《통일은 도적같이 올것》이라느니, 《한밤중에 그렇게 올것》이라는 역도의 망발은 민족이 화해하고 단합하여 통일을 이루려는 온 거제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둔이고 도전이며 체제 대결을 끌까지 하려는 범죄적 기도를 다시금 드러낸 대결광신자의 잠꼬대 같은 너두리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며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 있는 것이 누구인데 그 독기서린 일에서 《통일》 타령은 벌어진다.

령인가.

우리 거제는 리명박의 반통일정책을 비롯하여 온 거제는 얼마 전 리명박역도가 또다시 채 친 망방에 치미는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지금까지 민족의 저주와 규탄속에 역사의 오를로 사라져버린 대결 《정권》, 대결분자들도 많았지만 리명박과 같은 극도의 동족대결광신자는 일찌기 없었다.

최에는 벌이 따르기 마련이

다. 온 거제 앞에 두고두고 씻을수 없는 엉성난 죄악을 저지른 리명박은 혁사와 민족의 존엄한 심판을 면할수 없다.

통일조국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이 없는 자주화된 세상이고 민족의 일과 단합열기 가 차넘칠 행복의 세상이다. 통일과 담을 쌓은 역적폐당과 같은 지독한 동족대결분자들은 그 땅에서 숨쉴 공간이 없을 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거제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회를 더욱 높이 들고 안팎의 분별의 오를로 사라져버린 대결 《정권》, 대결분자들도 많았지만 리명박과 같은 극도의 동족대결광신자는 일찌기 없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서기국 부장 김영일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북남관계가 대결과 파국의 최극단에 이른 지금도 그 무슨 《인내심》이니, 《일관된 정책》이니 하며 저들이 마치도 시간여유를 가지고 있는듯이 어리석게 놀아고 있다. 그들이 최근 《6자회담》이 오래 지연될수록 북의 생존시간은 짧아질것》이라느니, 《3억US\$의 벌금》이니, 《북이 시간을 끈다고 공짜가 아니》라느니, 《시간은 결코 북의 편이 아니다.》느니 뭐니 하는 나발들을 불어댄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의 속 뒤틀린 《시간》 타령은 한마디로 북남관계파란과 《대북정책》 실패에 대한 내외의 비난여론을 모면하여 총파산된 저들의 반공화국국제 대결정책을 험리해보려는 구차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천하무식정이, 정치문화인들의 비루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시간이 누구의 편인가 하는 것은 북과 남의 현실이 뚜렷이 험해져 있다. 그것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천하무식정이, 정치문화인들의 비루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제로조선공민중앙협회는 6.15정신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세상이다. 지난해에 진행된 조선로동당대표회자는 자기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풍진 공화국의 정치사상적 위력, 억년 드넓지 않은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을 험하게 파시하였다. 자기 령도자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벌이 따르기 마련이

거리들이 런일 최전방부대들을 싸다니며 《강력대응》을 펴벌였고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한 《선조치, 후보고》라는 악명높고 전호적인 《대응체계》도 고안하였다.

리명박은 지금까지 민족내에 있어보지 못한 극악한 친미반통일분자, 전쟁광신자는 일찌기 살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를 위협하며 날아갔지만 래일에는 누구도 상상 못할 그 어떤 혁악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며 그로 인해 우리 민족이 무서운 핵전쟁 참화속에 빠져들지 않으려는 것을 누구도 장담할수 없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평화의 교란자, 도발자로서의 남조선보수당국과 군부호전세력의 정체는 다시 한번 한천하에 드러났다.

남조선당국은 특대형 보수집권세력인 《천안》호사건과 《(농협) 금융감독원》에 대한 《선조치, 후보고》라는 악명높고 전호적인 《대응체계》도 고안하였다.

바로 남조선보수당국의 침략적이며 전쟁도발적인 《교전수칙》에 의해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엄중성은 단순히 백수십명의 인명사고를 벼르고 있다는데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금 조선반도의 정세는 남조선보수당국과 군부호전세력의 침략적인 전쟁도전으로 하여 다치면 전쟁이 터질듯 한 혐의한 상태에 직면해있다.

려객기사격도 《북의 소행》인가.

김성남

## 려객기사격도 《북의 소행》인가

지난 17일 새벽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에 주둔한 남조선군 해병대 사병들이 정상함으로 따라 항행하던 아시아항공회사 려객기를 《부군용기》로 오wan하고 거기에 수십발에 달하는 소총사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남조선군부는 이에 대해 사병들이 주문도 쪽에서 평소에 보지 못하던 비행기가 나타나 그것을 《북

》이라고 고아대며 반공화국국제 대결을 응징하는 계단식으로 확대해왔다. 침략적인 외세와 악합하여 공화국을 반대하는 북침전쟁연습을 매일과 같이 벌려놓았는가 하면 지난해의 모략적인 《천안》호사건과 도발적인 연평도사건발생이후에는 《응징》과 《보복》을 떠들며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을 더욱 꼬활하였다.

오늘은 비록 목표를 살가린 수십발의 총탄이 려객기

가지로 진상은 귀신만 아는 상황이 되고 조선반도에 위기가 조성돼 풀육상잔이 재현되게 될것》이라는 글이 신문은 《천안》호와 연평도사건 이후 북남간의 긴장한 대치상태에 남조선군과 파도한 경제태세로 인하여 이번 사건이 벌어졌다고 전하였다.

이 나라의 유명한 군사관련씨트인 《서류명》에는 20일 《려객기》가 총에 맞았다면 《천안》호사건과 마찬

같은

무덤으로 보내야 할 악법 지난 19일 남조선경찰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안동지역 정책실장의 집들과 그들이 다니는 가운데 6.15통일시대에 온 민족의 저주와 규탄속에 혁사의 무덤속에 척박힐뻔 했던 이 악법이 남조선의 국우보수집권 세력에 의해 부활하여 거제 6.15통일시대에 한 압수수색을 하였다. 이보다 앞서 5월초에는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대상원들에게 대한 체포, 압수수색과 《민주동자전국회의》의 각 지부성원들에게 대한 가택수색, 조사도 진행하였다.

악명높은 《보안법》을 휘두르며 강행되는 남조선당국의 탄압동아리 지금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경찰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현 《정부》의 접점조기인 2008년에 비해 지난해에는 무려 4배에 가까워졌다.

중국정부는 사건과 관련하여 남조선당국에 《유호한 조치를 취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남조선령공을 지나는 민항기의 안전을 보장해줄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 나라의 유명한 군사관

관련씨트인 《서류명》에는 20일 《려객기》가 총에 맞았다면 《천안》호사건과 마찬

같은

신문은 《천안》호와 연평도사건 이후 북남간의 긴장한 대치상태에 남조선군과 파도한 경제태세로 인하여 이번 사건이 벌어졌다고 전하였다.

이 나라의 유명한 군사관

관련씨트인 《서류명》에는 20일 《려객기》가 총에 맞았다면 《천안》호사건과 마찬

같은

신문은 《천안》호와 연평도사건 이후 북남간의 긴장한 대치상태에 남조선군과 파도한 경제태세로 인하여 이번 사건이 벌어졌다고 전하였다.

이 나라의 유명한 군사관

관련씨트인 《서류명》에는

## 제2의 6.25를 불러오려는 위험한 책동

미국이 리승만도당을 사족하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킨 때로부터 61년이 되었다.

지난 조선전쟁은 전조선반도에 대한 치배권을 확립하고 나아가 동북아시아로 이어나라 세계 제제 암망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범죄적 행세로부터 산생되었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은 첫날부터 침략적인 대조선정책에 따라 북침전쟁도 방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미국은 여러 해에 걸쳐 《북벌》 계획들을 주도세밀하게 작성하고 저들의 대포방으로 써먹을 수 있는 남조선군에 대한 군사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10억 US\$에 달하는 막대한 군사원조와 함께 수많은 무장 장비를 남조선에 끌어들이었다. 한편 조선반도 주변 지역에 항공포함과 전략적 기틀을 비롯한 저들의 침략무력을 증강해치하고 남조선군을 내몰아 군사분계선 상에서의 끊임없는 무장도발책 등도 수없이 감행하였다.

이렇듯 정세를 긴장시켜온 미국은 1950년 6월 25일 리승만도당을 내세워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았다. 3년간의 조선전쟁기간 미국은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였다.

미국의 침략전쟁행위로 빚어진 이러한 재난의 혼사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한 리명박 《정권》은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을 추구하면서 침략적인 외세를 등에 업고 이땅에 또다시 전쟁의 불을 털려고 하고 있다.

남조선 보수 세력이 집권 초기부터 《비핵, 개방, 3,000》과 같은 대결정책을 내들고 《주직론》과 《선제타격》 폭언을 공용연히 쳐치며 해마다 하늘과 땅, 바다에서 침략적인 동족대결 소동을 풀이 없이 감행하였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새 전쟁도발책은 특대형 모략인 《천안》 호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국도에 이르렀다. 그들은 합선침몰 사건을 구실로 그 누구에 대한 《응징》이나, 《보복》이니 하고 떠들어대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서해 일대에 대해 적인 침략무력을 펼어들이고 미군과의 대규모의 해상함 훈련 등 전쟁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였다. 이것도 성차지 않아 호전광들은 공화국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표적물을 설치하고 종탄을 쏘아내는 특대형 도발 행위를 감행하고 침략적인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라는 것까지 조작하였다. 얼마전에는 6.25를 계기로 1주일간을 《6.25상기 호국안보주간》으로 정하고 반공화국 소동을 요란스레 벌리면서 전쟁 분위기를 고취하였다. 이 모든 것은 외세를 통해 업고 제2의 6.25를 불러오려는 위험한 망동이다.

김철호

## 실패한 미국의 《대북정책》

얼마 전 국제관계 전문지 《포린 퓔리시》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로 끝났다.》라는 내용으로 미국의 흡친스 종합대학 연구소 2명의 연구원의 글이 실리었다.

글에서는 북을 고립시키고 《나쁜 행동》을 버릴 때까지 핵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인 내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전략적인

내정책》을 고집한다면 남조선에서 새 《정부》가 들을 때까지 2년 동안은 북파의 협력 상이 재개되지 않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글에서는 《미국의 행동이 지금의 위험스러운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면서 미국은 《대북정책》을 바꾸고 북과 직접 대화를 통해 협력 상제개 노력 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천안〉 호 북소행설은 우격다짐》

남조선의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CBS》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천안》 호 사건에 대해 《〈정부〉 발

동선언남측위원회 명예대표는 《6.15 공동선언발표 11주년 기념 평화통일 한마당》 행사에서 《〈천안〉 호 사건이

국적인 대조를 이루는 사

진들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이로부터 어린이는 즐거움의 샘, 꽃망울이라고 했던가. 그러나 비우한 토양을 떠나 아름다운 꽃과 열매, 밝은 앞날을 생각할 수 없다.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낌없이 베푸는 공화국의 인민적 시책으로 하여 자기들의

모습.

여기에서 북과 남의 현실을 보여주는 두장의 사진이 있다.

하늘을 날을듯 좋아라 웃고 떠들며 마음껏 대지를 활보하는 공화국 어린이들의 행복한 모습. 놀이터도 아닌 고엽제로 탐통밀에 앉아있는 남쪽 어린이의 모습.

미군이 왜관미군기지내에서

지하수리용을 금지한 사실 확인

22일 남조선의 《CBS》 방송이 고엽제 매몰지로 알려진 왜관미군기지에서 미군이 기지내 지하수를 마시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데 대해 보도하였다.

방송은 미군이 이곳에서의 지하수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군사령관의 말이 허위로 드러난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군측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은 미군사령관의 말이 허위로 드러난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군측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사기자

방송은 미군이 이곳에서의 지하수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군사령관의 말이 허위로 드러난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군측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은 미군사령관의 말이 허위로 드러난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군측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사기자

방송은 미군이 이곳에서의 지하수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군사령관의 말이 허위로 드러난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군측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은 미군사령관의 말이 허위로 드러난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군측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사기자

방송은 미군이 이곳에서의 지하수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군사령관의 말이 허위로 드러난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군측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은 미군사령관의 말이 허위로 드러난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군측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사기자

방송은 미군이 이곳에서의 지하수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군사령관의 말이 허위로 드러난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군측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은 미군사령관의 말이 허위로 드러난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군측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사기자

방송은 미군이 이곳에서의 지하수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군사령관의 말이 허위로 드러난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군측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은 미군사령관의 말이 허위로 드러난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군측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사기자

방송은 미군이 이곳에서의 지하수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군사령관의 말이 허위로 드러난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군측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은 미군사령관의 말이 허위로 드러난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군측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사기자

방송은 미군이 이곳에서의 지하수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군사령관의 말이 허위로 드러난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군측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은 미군사령관의 말이 허위로 드러난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군측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사기자

방송은 미군이 이곳에서의 지하수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군사령관의 말이 허위로 드러난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군측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은 미군사령관의 말이 허위로 드러난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군측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사기자

방송은 미군이 이곳에서의 지하수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군사령관의 말이 허위로 드러난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군측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은 미군사령관의 말이 허위로 드러난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군측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사기자

방송은 미군이 이곳에서의 지하수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군사령관의 말이 허위로 드러난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군측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은 미군사령관의 말이 허위로 드러난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군측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사기자

방송은 미군이 이곳에서의 지하수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군사령관의 말이 허위로 드러난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군측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은 미군사령관의 말이 허위로 드러난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군측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사기자

방송은 미군이 이곳에서의 지하수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군사령관의 말이 허위로 드러난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군측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은 미군사령관의 말이 허위로 드러난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군측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사기자

방송은 미군이 이곳에서의 지하수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군사령관의 말이 허위로 드러난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군측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은 미군사령관의 말이 허위로 드러난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군측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사기자

방송은 미군이 이곳에서의 지하수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군사령관의 말이 허위로 드러난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군측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은 미군사령관의 말이 허위로 드러난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군측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사기자

방송은 미군이 이곳에서의 지하수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군사령관의 말이 허위로 드러난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군측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은 미군사령관의 말이 허위로 드러난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군측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사기자

방송은 미군이 이곳에서의 지하수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군사령관의 말이 허위로 드러난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군측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은 미군사령관의 말이 허위로 드러난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군측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사기자

방송은 미군이 이곳에서의 지하수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군사령관의 말이 허위로 드러난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군측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은 미군사령관의 말이 허위로 드러난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군측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사기자

방송은 미군이 이곳에서의 지하수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군사령관의 말이 허위로 드러난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군측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은 미군사령관의 말이 허위로 드러난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군측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사기자

방송은 미군이 이곳에서의 지하수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군사령관의 말이 허위로 드러난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군측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은 미군사령관의 말이 허위로 드러난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군측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사기자

방송은 미군이 이곳

# 의리를 가져 주는 빙수매대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강하고 단합정신이 높은 민족으로 세상 사람들을 칠 알려져 있다. 그 우수한 민족성은 민족체육종목들에도 그대로 비껴있다.

일반적으로 민족체육에는 해당 민족의 성격과 생활환경, 민족적 정서와 취미 등이 특징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체육경기를 하나 해도 단결력과 정신력을 높여주는 집단경기를 즐겨하였다.

수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바줄당기기는 그 대표적인 것이다. 때와 장소, 대상 등에 구애됨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참가할 수 있으며 집단의 단결과 행동일치를 요구하는 전형적인 경기인 바줄당기기에는 단합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우리 거례의 성격상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한 푸줄을 이으며 하나님의 강토에서 살아온 것과 관련된다.

역사적으로 바줄당기기는 우리 인민들 속에서 인기 있는 체육종목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정월대보름을 비롯한 민속여행에서는 바줄당기기가 성대히 진행되곤 하였는데 그 광경이 정

말 불만 하였다고 한다.

당시 바줄당기기는 대체로 마을 호강장에 진행되었는데 경기전에 매 마을들에서는 벼짚이나 짚으로 굽은 푸원 줄에 약 1m간격으로 수많은 작은 줄들을 단 육중한 바줄을 준비하여야 하였다.

바줄당기기는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매 집단의 단결력

를 아주 잡고 힘과 기교를 써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우리 나라의 고유한 민족경기이다. 우리 인민들은 오랜 엷날부터 모내기와 김베기, 가을걷이 때의 실참에 말미리나 강가의 모래판 혹은 잔디밭에서 흥겨운 씨름판을 벌리곤 하였다.

씨름에 대한 홍미있는 자

일정신을 키워주는 「위험한 놀이」라고 하면서 없어버리려 들었다. 하지만 일제의 암적인 민족말살정책도 자기 민족의 정통성과 우수성을 지켜나가려는 우리 거례의 애국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우리의 민족체육은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렇도에 의하여 민족의 습기와 위용을 떨치는 수단으로 우리 인민들의 생활속에 깊이 뿐리내리게 되었다.

일찌기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고구려시기에 우리 선조들은 씨름과 활쏘기, 말타기를 비롯한 민족체육경기를 많이 하면서 몸과 마음을 단련하였기 때문에 나라가 강하였다고 하시면서 민족체육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가르쳐지셨다. 일제의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억눌렸던 민족체육은 해방후 자기 발전의 새 역사로 펼쳐지게 되었다.

우리 거례가 장구한 역사기간에 창조한 우수한 모든 것을 활짝 풀피우고 조선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온 세상에 떨쳐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현명한 렇도에 의해 오늘 민족체육은 더욱 장려되고 찬란하게 개화발전하고 있다.

지난 세기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본의 씨름과 바줄당기기를 비롯한 민족체육경기들이 조선선사들의 단결력과 반

가지 빙수들은 보기만 해도 한여름의 더위가 순식간에 가셔지는 듯싶다.

어디를 보나 깨끗하고 정이 들어 시원한 빙수를 드는 손님들의 마음 또한 저쁜하게 해주는 빙수매대들은 지난해 평양시민들에게 빙수를 잘 만들어 봉사할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침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다.

도마도빙수, 팔빙수, 말기빙수, 둘째빙수… 손님들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봉사되고 있는 빙수는 시원함은 물론 영양과 또한 높아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지금 평양시내에는 빙수매대뿐 아니라 강서약수매대, 행차매대, 사이다매대, 에스키모매대 등 각종 음료매대들이 점점되어 시민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

본사기자 김춘경

# 우리 민족의 차문화 (6)

부처님들의 공양에도 리용되었다. 또한 당시 시장에서 비싸게 팔기도 하여 재정을 보충하는데 쓰이였다.

여기서 또 하나 홍미를 끄는 것은 차촌을 차소촌이라고 기록한 사실이다. 이것은 봉건국가 차생산에 쓰이는 샘물이 지금도 있다고 한다. 후세 사람들이 이르기를 차소촌이라고 한다. 여러 중요한 장소에는 장생표가 세워져 있다. 장생표란 사찰이 통제하는 구역, 경계를 표시하는 하나의 표식물이다. 통도사의 장생표는 모두 12개 정도로 사찰은 큰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

통도사에는 이러한 비석을 사방에 세워놓아 자기들의 사원토지와 경내유지를 보장하고 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통도사가 소보되는 차의 수요를 자체의 사찰경내에서 운영되는 차촌 또는 차소촌에서 감당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다.

당시 차촌의 운영은 통도사뿐 아니라 모든 사찰에서 흔히 보는 보편적 현상이었다. 이것을 통하여 사원경제에서 차생산이 중요한 수입원의 하나였다는 것을 알수 있다.

사찰에서 생산된 차는 승려들의 음차에도 리용되었고

차나무는 곡식과 달리 평지에서 보다 산간사면에서 잘 자라므로 산곡들에 위치하여 흔히 보는 보편적 현상이었다. 이것을 통하여 사원경제에서 차생산이 중요한 수입원의 하나였다는 것을 알수 있다.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소장 교수 박사 조희승

이 러 왕 《가랑비》, 《는개비》, 《보슬비》, 상식 《안개비》, 《이슬비》

로 가랑비와 이슬비를 합쳐서 이르는 말이다.

안개비는 는개비보다도 더 가는, 말그대로 안개로 보이는 가장 가늘게 내리는 비를 말한다.

는개비는 이슬비보다는 가늘고 안개비보다는 좀 굵은 비를 말한다.

이슬비는 이슬만 한 크기로 아주 가늘게 내리는 비를 말한다.

본사기자

## 민족체육종목들에 어려 있는 단합정신

파정신력의 치열한 대결이었다. 정신력과 단결력이 부족하고 매 선수들의 힘과 호흡, 차세가 일치되지 못한 팀은 경기에서 이길 수 없었다. 경기가 고조에 이르면 구경하던 사람들은 경기장에 까지 뛰어들어 자기 마을팀에 힘을 복돋아주기 위해 목이 려지게 응원을 하였다. 이진 팀은 진 팀의 바줄까지 걸어안고 흥겨운 농악속에 경기장을 빙빙 돌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이렇듯 바줄당기기에는 단결력이 강한 우리 민족의 훌륭한 전통과 기질이 깃들어 있다.

조선씨름도 마찬가지이다.

씨름은 두 사람이 서로 살바

되었는데 밥상에는 그 지방에서 담근 진뎅이젓은 서해안지방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우리 나라의 고유한 민족음식이다.

진뎅이는 새우의 일종인데 어떤 지방에서는 곤쟁이라고도 한다. 깨끗한 진뎅이에 소금을 적당히 두고 삶혀 이힌 진뎅이젓은 영양가가 높고 암탉을 돋구는 음식으로 유명하다. 진뎅이젓의 이런 독특한 맛으로 하여 한때 『감동젓』이라고도 불리웠다.

지금으로부터 근 400년 전 우리 나라를 찾은 외국의 사신들이 해주를 지나다가 그곳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밥상에는 그 지방에서 담근 진뎅이젓은 서해안지방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우리 나라의 고유한 민족음식이다.

식사도종 사신일행중의 한 사람이 난생 처음보는 음식인 진뎅이젓을 입안에 떠넣

고 우물우물하더니 무슨 생각이 났는지 서남방향으로 눈길을 돌리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사신일행과 함께 다니던 원접사가 해주의 관리를 시켜 전쟁이 것을 구해오게 한 다음 그것

을 사신에게 주었다. 진뎅이젓을 받은 사람은 너무도 고맙고 황송하여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처럼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하여 진뎅이젓을 『감동젓』이라고 불렀다 한다.

본사기자

고 우물우물하더니 무슨 생각이 났는지 서남방향으로 눈길을 돌리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사신일행과 함께 다니던 원접사가 해주의 관리를 시켜 전쟁이 것을 구해오게 한 다음 그것

을 사신에게 주었다. 진뎅이젓을 받은 사람은 너무도 고맙고 황송하여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처럼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하여 진뎅이젓을 『감동젓』이라고 불렀다 한다.

본사기자

그리고 교장선생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내가 왜 제현선생의 마음을 모르겠소. 하지만 이것 보우. 이젠 세월이 길게 흘러가지 않았소.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조선선생도 모르고 있지 않소. 그사이에 얼마나 복잡한 판을 치르었소. 그런데 생사여부도 모르고 세월의 기약도 없이 그 사람을 기다린다는게 너무 허무하지 않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장선생님의 목소리는 무척 갈려 있었다. 나도 어린 마음이 그 어떤 비상한 예감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찡해졌다. 온몸으로 더운 바람이 훑어오르는 듯 하였다.

그 사람은 살아있을겁니다. 그 사람은 살아어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겁니다. 그 사람은 쉽게 넘어질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겠지. 제현선생을 마음에 둔 사람이라면 도 손바닥, 손가락비비기기를 하면 혈압이 안정될 수 있다.

본사기자

여기에는 빙수들은 보기만 해도 한여름의 더위가 순식간에 가서지는 듯싶다.

어디를 보나 깨끗하고 정이 들어 시원한 빙수를 드는 손님들의 마음 또한 저쁜하게 해주는 빙수매대들은 지난해 평양시민들에게 빙수를 잘 만들어 봉사할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침에 차넘친다.

그중에서도 사람들에게 제일 시원한 느낌을 주며 반기는 것은 시안의 곳곳에 설치된 빙수매대들이다. 색갈고운 파란색지붕을 엎은 하얀집과 활짝 펼친 큰 양산밀에 탁자와 의자들이 놓여 있는 빙수매대들은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걸불안이라고 봉사비용들이 그쯤하게 갖추어진 매대 안은 또 얼마나 정갈한지 모른다. 훈문같이 정갈한 경질 유리그릇에 담겨져 나오는 갖

## 민족악기 양금

양금은 18세기 말경부터 우리 인민들 속에서 널리 사용되어온 민족악기이다.

그리하여 음역이 넓어지고 음색이 아름답고 음량이 풍부하게 되었으며 연주도 자유롭고 민첩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널린화음, 다양한 멜기, 퍼치카토 등 새로운 주법들이 도입되어 음악연주형상에서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양금은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침에 의해 인민들의 생활속에 깊이 뿐리내리게 되었다.

그 초기의 양금은 원손으로 악기를 받쳐들고 오른손에 채를 잡고 한줄씩 때리는 방식으로 연주하는 매우 자그만 악기였다.

그 초기의 양금은 원손으로 악기를 받쳐들고 오른손에 채를 잡고 한줄씩 때리는 방식으로 연주하는 매우 자그만 악기였다.

그 초기의 양금은 원손으로 악기를 받쳐들고 오른손에 채를 잡고 한줄씩 때리는 방식으로 연주하는 매우 자그만 악기였다.

그 초기의 양금은 원손으로 악기를 받쳐들고 오른손에 채를 잡고 한줄씩 때리는 방식으로 연주하는 매우 자그만 악기였다.

그 초기의 양금은 원손으로 악기를 받쳐들고 오른손에 채를 잡고 한줄씩 때리는 방식으로 연주하는 매우 자그만 악기였다.

그 초기의 양금은 원손으로 악기를 받쳐들고 오른손에 채를 잡고 한줄씩 때리는 방식으로 연주하는 매우 자그만 악기였다.

그 초기의 양금은 원손으로 악기를 받쳐들고 오른손에 채를 잡고 한줄씩 때리는 방식으로 연주하는 매우 자그만 악기였다.

그 초기의 양금은 원손으로 악기를 받쳐들고 오른손에 채를 잡고 한줄씩 때리는 방식으로 연주하는 매우 자그만 악기였다.

그 초기의 양금은 원손으로 악기를 받쳐들고 오른손에 채를 잡고 한줄씩 때리는 방식으로 연주하는 매우 자그만 악기였다.

그 초기의 양금은 원손으로 악기를 받쳐들고 오른손에 채를 잡고 한줄씩 때리는 방식으로 연주하는 매우 자그만 악기였다.

그 초기의 양금은 원손으로 악기를 받쳐들고 오른손에 채를 잡고 한줄씩 때리는 방식으로 연주하는 매우 자그만 악기였다.

그 초기의 양금은 원손으로 악기를 받쳐들고 오른손에 채를 잡고 한줄씩 때리는 방식으로 연주하는 매우 자그만 악기였다.

그 초기의 양금은 원손으로 악기를 받쳐들고 오른손에 채를 잡고 한줄씩 때리는 방식으로 연주하는 매우 자그만 악기였다.

그 초기의 양금은 원손으로 악기를 받쳐들고 오른손에 채를 잡고 한줄씩 때리는 방식으로 연주하는 매우 자그만 악기였다.

그 초기의 양금은 원손으로 악기를 받쳐들고 오른손에 채를 잡고 한줄씩 때리는 방식으로 연주하는 매우 자그만 악기였다.

그 초기의 양금은 원손으로 악기를 받쳐들고 오른손에 채를 잡고 한줄씩 때리는 방식으로 연주하는 매우 자그만 악기였다.

그 초기의 양금은 원손으로 악기를 받쳐들고 오른손에 채를 잡고 한줄씩 때리는 방식으로 연주하는 매우 자그만 악기였다.

그 초기의 양금은 원손으로 악기를 받쳐들고 오른손에 채를 잡고 한줄씩 때리는 방식으로 연주하는 매우 자그만 악기였다.

그 초기의 양금은 원손으로 악기를 받쳐들고 오른손에 채를 잡고 한줄씩 때리는 방식으로 연주하는 매우 자그만 악기였다.

그 초기의 양금은 원손으로 악기를 받쳐들고 오른손에 채를 잡고 한줄씩 때리는 방식으로 연주하는 매우 자그만 악기였다.

그 초기의 양금은 원손으로 악기를 받쳐들고 오른손에 채를 잡고 한줄씩 때리는 방식으로 연주하는 매우 자그만 악기였다.

그 초기의 양금은 원손으로 악기를 받쳐들고 오른손에 채를 잡고 한줄씩 때리는 방식으로 연주하는 매우 자그만 악기였다.

그 초기의 양금은 원손으로 악기를 받쳐들고 오른손에 채를 잡고 한줄씩 때리는 방식으로 연주하는 매우 자그만 악기였다.

그 초기의 양금은 원손으로 악기를 받쳐들고 오른손에 채를 잡고 한줄씩 때리는 방식으로 연주하는 매우 자그만 악기였다.

그 초기의 양금은 원손으로 악기를 받쳐들고 오른손에 채를 잡고 한줄씩 때리는 방식으로 연주하는 매우 자그만 악기였다.

그 초기의 양금은 원손으로 악기를 받쳐들